

주일의말씀

##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김종기 바오로 신부  
금호성당 주임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토요일 교리시간보다 일찍 오는 학생들이 사무실에 와서 물을 찾습니다. 어떤 물을 찾느냐고 했더니, “생수”라고, 가게에서 파는 병에 담긴 먹는 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바로 옆에 있는데”라고 했더니 한 아이가 “신부님 수돗물을 어떻게 먹어요?” 합니다. 속으로 ‘어떻게 먹긴, 입으로 먹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 수돗물은 불안해서 못 먹고 가게에서 파는 생수만 사다 먹는 모양입니다. 통계적으로 사람은 하루 1리터 정도의 물을 먹는다고 합니다. 1년 365리터, 10년이면 3,650리터, 평균 70세를 산다고 하면 255,500리터가 됩니다. 평생 10톤 트럭으로 2,550대 정도의 물을 마시는 셈입니다. 엄청 많입니다. 그래도 또 목이 마릅니다.

물 뿐만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또한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할 때 심한 욕구불만이 생기고, 그 때문에 갈등과 불행을 느낍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사람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욕구합니다. 해도 해도 만족을 못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얻은 것들, 여러분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에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현재 가진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잠시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에 자신의 온 정열을 바치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낍니다. 죽을 때까지 인간은 이러한 갈증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갈증을 채워줍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우리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한 갈증을 느낀다면, 오늘 복음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미리 알고 채워 주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이미 주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도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체 성사를 통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의 갈증을 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삶의 진정한 목마름을 깨닫고 해결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목마름을 알게 해주시고, 그 갈증을 풀어줄 구원의 영원한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구주보



### 천주교 대구대교구 2차 시노드 개막미사

“새 시대, 새 복음화” 새 시대 복음화를 위한 전망과 성숙한 교회 공동체 실현

◆ 일시 2011년 4월 8일(금) 저녁 7:30 ◆ 장소 계산주교좌성당 ◆ 교구 사제단 공동 집전





## 21. 레지오마리아에 도입

문화홍보실

지금 우리 교구에는 여러 가지 사도직 단체와 신심운동 단체가 활발히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빨리, 또 성공적으로 본당 생활에 스며든 것은 레지오마리아일 것입니다. 어쩌면 레지오마리아가 우리 정서나 여건에 잘 맞아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만, 우리나라만큼 레지오마리아가 활발히 움직이고 널리 퍼져 있는 나라는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사실 레지오마리아 운동 자체는 올해가 창립 90주년이니까 그리 오래 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들어온 것은 1953년이니까 이제 6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해 7월에 목포에 있는 산정동본당과 경동본당에서 한국 최초의 회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구에서는 3년 반 뒤인 1957년 1월 13일 왜관본당에서 <중도의 모후> 뵈레시디움의 첫 주회를 가진 것이 그 시작입니다. 한 달 뒤에는 계산본당에 <다윗의 적투>와 <새별> 뵈레시디움이 생기고, 반년 뒤인 8월 22일에는 왜관에서 <천주의 성모> 꾸리아가, “1년 뒤인 1958년 1월 26일에는 계산동에서 <의덕의 거울> 꾸리아가 출범하게 됩니다. 교구에 레지오가 도입된 지 불과 2년 만에, 대구교구에서는 55개의 뵈레시디움과 4개의 꾸리아, 행동단원 772명, 협조단원 2,129명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구

대교구에는 3만 명이 넘는 레지오마리아 단원이 있습니다.

1990년, 대구의 레지아를 세나투스로 승격하기 위해 끈질기움에서 심사를 하러 왔을 때, 서양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나오신 분들이 무엇인가 도와 줄 것이 없겠느냐고 묻자 대구교구의 레지아 간부들이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성모님의 존칭으로 뵈레시디움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 봐도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뵈레시디움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러다가는 한 본당 안에 이름이 같은 뵈레시디움이 생길 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끈질기움에서 성모님의 존칭을 더 많이 지어 주십시오.”

평신도가 전교하고 권면하며 사도직의 제 일선에서 활동하는 것은 한국천주교회의, 또 우리 대구대교구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여러 사도직 단체에서 애쓰시는 교우 여러분, 봉사를 하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없지 않지만, 이것이 다 내 일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힘을 냅시다! 우리가 바치는 것이 비록 보잘 것 없지만 주님께서 강복하시면 무수히 불어나 많은 사람을 구할 것입니다. 

### 언제나 흐릿함이 샘물처럼..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사순 제3주일

입당성가

118 골고타 언덕

화답송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봉헌성가

512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네 안에서 생명의 샘이 솟아나리라.

파견성가

117 지극한 근심에

영성의 향기

:: 본당은 친교를 배우는 학교

교회를 친교의 공동체라 합니다. 이 때의 '친교'라는 말은 그저 친한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을 뜻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서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어서 하고 싶다고 털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도와 주셔야 하고, 또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야 하는 일입니다. 미운 사람,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연습을 해야 할까요? 이 '친교'의 노력과 연습을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바로 본당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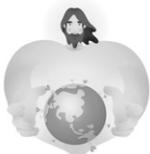


우리가 본당 생활에서 곱들며 구경꾼으로 남아 있다면 결코 친교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각각' 혹은 '서로 서로'라는 단어가 50번 이상 나오는데, 이 서로라는 말은 교우들 간에 어찌해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에게 용기를 주라, 서로 권고하라, 서로 인사하고 도와주어라, 서로 가르치고 받아들이라, 서로 남의 짐을 져주어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순종하라, 서로 헌신하라... 이와 같이 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중심으로 맺어진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 가정 안에서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본당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가족이 맺는 친교를 배우고 또 조금씩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주교

- 교구사목국 권가타라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무엇을 위해 서두르시나요?



세계적인 대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가 아홉 살 때, 숙부와 함께 눈꽃 구경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눈 덮인 언덕길을 한참 오르던 숙부가 라이트를 나무랐습니다. "너 뒤를 한번 돌아봐라. 눈 위에 난 네 발자국을 보면 온 사방을 쓰다느니라고 비뿔비뿔하지? 삼촌 발자국은 딱 직선이야. 그렇게 너처럼 주의가 산만하면 안 되고,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총명한 라이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삼촌은 정말 안됐구나. '목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서 그 많은 예쁘고 좋은 경치를 다 놓치다니!"

- 옮겨온 글입니다 -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3.29(화)은혜 전달출(토마스데이퀴노)신부 1주기입니다.

성소 / 피정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 미사

일시: 3.28(월) 11:00

장소: 고산성당

내용: 고해성사, 미사, 안수

문의: (051)782-0765

마리아의전교자프란치스코회 성소모임

일시: 4.3(일) 13:00

장소: 이곡성당 수녀원

문의: (016)570-0939

성바로말수도회 성소모임

일시: 4.4(매월 첫 월요일) 19:30

장소: 바로로말 대구서원

문의: (010)2503-5185

젊은이 부활 전례 피정

일시: 4.22(금) 17:00~24(일) 15:00

장소: 튜평포교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313-3431 / (010)8519-3431

렉시오디비나 피정

입문피정: 4.27(수)~5.1(일)

가족피정: 5.7(토)~8(일)

문의: 연화리피정의집, (054)973-4835

예수의가리마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19:00~21:00

장소: 만촌1동 성당 수녀원

문의: (010)2568-5231

http://cafe.daum.net/vocatio

교육 / 모집

여성부가족부 인정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생모집

교육기간: 3.28~6.27 (매주 월) 9:30~18:00

대상: 전문대졸이상 졸업자

문의: 가톨릭상담원교육센터, 253-1401

4월 영여성경 공부반 모집

개강: 4.5(화) 10:00~12:00 (월:2만원)

과정: 화-갈라디야, 신명 / 목-마태, 창세

문의: 관덕정, 254-0151 / (010)2578-5535

전광진신부의 신앙 강좌

기간: 4.12, 8주간(매주 화 14:30~16:30)

강좌 후 미사가 봉헌됩니다

장소: 한티피정의집

수강료: 8만원(매 강좌 분납 가능)

문의: 한티피정의집, (054)975-5151

관덕정 영성강좌

기간: 4.29~6.10(매주 금) 10:00~12:00

주제: “여성, 천주교와 만나다”

내용: 말하는여성/일하고싶은여성/외로운여성/

교회를감싸다/여성,경제를감당하다

문의: 254-0151 (선착순50명), 수강료: 3만원

파스카청년성서모임 모집

단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255-1582 (평일14:00)

성요셉마을 입소 장애인 모집

기간: 충원시까지, (054)435-4176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인

소재지: 김천시 남면 오봉리 201

안내

부활위문품

군중후원회에서 부활절을 맞아 군위문품을

보낼 예정이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4.3(일)까지, 접수: 본당사무실

대상: 신자자녀현역사병(훈련병,교육병,하사관,장교제)

가톨릭문화관 사무실임대(1층10평, 16평)

문의: 사무장 (011)9579-7382

천주교 군중교구 심벌마크 공모

기간: 3.20(일)~6.12(일)

방법: AI파일, 설명글(이름, 연락처 표기)

접수: gunjong@catholic.or.kr(총상금 450만원)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4대리구 포항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28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비노의성모님 미사	3월 31일(목) 오후2시	삼덕성당
구미지역 밀알후원회미사	3월 28일(월) 오전11시	도량성당	미바회 미사	4월 1일(금) 오후2시	성모당
군중후원회 미사	3월 28일(월) 오전11시	계산주교좌성당	성모의 기사회 미사	4월 2일(토) 오전10시	월배성당 내 수도원
			푸른군대 첫 토요일신미사	4월 2일(토) 오후2시	성모당

송월타올

\* 인쇄무료 \*

이영용(베드로), 심옥섭(미카엘라)

☎ 010-9431-3276, 629-0745

가톨릭문화관 1층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 전문의, 원장 : 정순우 (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저녁철범어회 8번 출구)

사랑의 피부과

피부 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전문의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위치: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최추·관절염 및 뇌·신경 전문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진전

○ 요통, 좌골신경통, 목·허리디스크, 골다공증

○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골격질환

원장/전문의 백 윤 일(스테파노)

성당시장 네거리 628-4111

곽앤신연하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 곽동석

교수술 · 예방접종 · 영유아검진전문병원

서부정류장, 옛 달성군청 옆 삼광빌딩 4층

☎ 638-7582 (치료빨리)

HOME PAGE : www.ksnose.com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

T. 752-9797

애플비뇨기과

비뇨기과 원장 강일(베드로)

전문의 원장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임검진)

오로걸스클리닉(24시간 쾌적)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매일IT프라자

김요셉(홍은) 유통단지 전자관1층 230호

TEL: 604-3301(1대)

전자부/소형기전, TV, 선풍기, 에어컨, 냉방기, 난방기, 구역, 통역기

의료기/안마의자, 전기장기, 안마기, 온수매, 전기요

PC 부품패키, 주방기, 프린트, 워셔드, USB공유기, 선전용품